

# 협 의 회 동 정

## 「멀티미디어협의회」 확대·개편 예정

멀티미디어 마인드 확산과 대중화를 위해 우리 협회 산하기구로 설립된 멀티미디어협의회가 조만간 한국멀티미디어산업발전협의회로 확대·개편될 예정이다.

이는 그동안 협의회의 활발한 활동성을 높이 평가받아, 정보통신부가 지난 6월 14일에 발표한 “멀티미디어산업 육성계획”에 따라 멀티미디어산업의 기반조성 및 발전방안을 강구하고 애로사항을 정부에 건의하는 추진체로 “멀티미디어협의회”를 “한국멀티미디어산업발전협의회”로 확대·개편하여 산·학·연, 방송·언론·통신업계 이용자단체를 포괄하는 민간협의기구로 운영한다는 것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멀티미디어협의회 집행부에서는 발전협의회를 산·학·연·관의 전문가로 위원들을 구성하여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협의 및 기반사업의 추진, 협의회 사업강화를 위한 분과 위원회의

증설과 세분화, 정부기관 및 판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으로 정책개발과 제안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추진목표로 설정하였다.

멀티미디어산업발전협의회는 국내 멀티미디어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발전을 위한 공동방안을 모색하여 정부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대정부 청구역할과 산·학·연·관의 교량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핵심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자립기술 확보와 대중화를 위한 멀티미디어 교육·홍보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멀티미디어산업의 활성화와 산업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산업발전협의회 경륜을 지닌 저명인사로 구성 사업과 활동을 심의·의결하고, 협의회의 사업과 의결사항 추진을 위한 실천체로 운영위원회를 두며, 실무활동을 수행할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협의회의 산하에 두기로 하였다.

또한 우리 협회에서 사무국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합의하였다.

멀티미디어산업발전협의회 구성을 위해 8월 28일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9월 15일에 발기인대회를 거쳐 9월말까지 협의회를 발족시킨다는 목표 아래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 멀티미디어 “세종상” 시상 내년으로 순연

멀티미디어협의회 협력분과위원회에서는 올 11월로 예정했던 멀티미디어 우수제품 시상을 내년 4월 22일 정보통신의 날로 하기로 순연했다.

우리 협회와 중앙일보사가 주최하고 정보통신부가 후원, 한국통신 기간통신사업자와 SBS가 협찬사로 참여할 예정인 멀티미디어 “세종상”시상은 대상(대통령상), 기술상(정보통신부장관상), 제품상(중앙일보사장상), 특별상(올해의 멀티미디어인물 및 단체상)등 4분야로 나누어 실시될 예정이다.

기술자립기반을 강화하여 국제

## CALS EXPO '95 컨퍼런스와 전시회 안내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 컨벤션센터에서 '95. 10. 23~26일, 4일간 CALS EXPO '95가 개최된다. “미래를 향한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리게 되는 CALS EXPO '95는 기술 및 표준을 통해 통합되어지는 세계적인 기업들과 관련된 CALS의 역할과 이에 따르는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CALS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활성화시키는데 이번 행사의 의의가 있다.

CALS EXPO '95는 컨퍼런스와 전시회로 나누어 진행되며 주최는 CALS Industry Steering Group이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협회는 회원사들에게 CALS EXPO '95 참여 안내를 하고 있다.  
(문의 5131-121~2 국제부)



▲ 멀티미디어협의회 8월 집행부회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멀티미디어 기술개발 및 연구활동의 장려와 멀티미디어 제품의 보급확산 및 이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 이 시상 제도는 우수 전문가그룹에 의한 멀티미디어의 신기술 및 신제품을 심사, 추천, 홍보, 시상할 계획이다.

또한, 시상대상 선정기준은 대상에 해당년도에 멀티미디어산업 부문에서 가장 뛰어난 성과를 얻은 기술 및 상품 혹은 서비스를 선정기준으로 설정했으며, 기술상은 해당년도에 멀티미디어산업 발전에 가장 영향을 준 기초기술을 개발한 업체 및 단체를 제품상에는 해당년도에 개발되어 가장 많은 사용자를 획득한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상품을, 특별상의 단체상과 인물상에는 해당년도에 멀티미디어산업 발전에 가장 공헌이 많은 기업 혹은 단체, 인물을 선정기준으로 설정했다.

협의회는 매년 시행할 이 시상

식을 심의기구 설립과 전문위원회를 발족하여 더욱 뜻있는 행사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멀티미디어협의회 8월 집행부 회의 개최

멀티미디어협의회는 지난 8월 24일 타워호텔 실버룸에서 8월 집행부 회의를 개최했다.

삼성전자의 김건중 위원장을 비롯해 11명의 위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멀티미디어협의회 확대·개편계획에 대한 심의와 멀티미디어 “세종상”시장제도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또한, 멀티미디어산업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계획(안) 검토 및 멀티미디어 타이틀 공동개발 제안의 심·의결, “멀티미디어 2020” 편집기획에 대한 재검토가 있었다.

멀티미디어협의회 확대·개편 계획에 대해서 “협의회”를 확대 개편할 경우 정보통신부의 자금

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와 간담회 개최를 통해 확대·개편 계획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는 등을 협의했다.

또한, 당초 11월에 있을 예정이었던 시상계획을 내년 '96년으로 연기하기로 했으며 시상명의를 “멀티미디어 세종 대상”으로 하고, 시상 횟수는 연 1회로 결정하며, 심사접수 방법은 추천 대신 공모 형태로 변경키로 했다.

한편, 우리 “멀티미디어 활성화”계획(안) 협의회 사업으로 제안했는데, 이번 협의회회의에서 이 계획안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 멀티교육용 타이틀 공동개발 결정

멀티미디어협의회내 콘텐츠분과위원회 회의가 지난 7월 20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이진기 분과위원장(현대미디어시스템)외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먼저 분과위 상반기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보고와 지난 7월 15일에 개진되었던 집행부 회의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분과위 상반기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지난 정기 회의개최에 대한 보고와 멀티미디어 교육 홍보용 타이틀 공동 개발에 대한 연구과제를 제안 했으며, 이에 참여사도 함께 선정했다.

선정된 참여사는 동아출판사와 한국전산, 현대미디어시스템 3개사이며 개발기간은 5개월이다. ●